

참 평화를 누릴 시대가 오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

우리는 다가오는 12월 19일, 도약의 21세기를 열어 갈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간, 계층간, 남북간의 갈등을 이번만큼은 말끔히 해소하여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이룩할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지금 각 후보들은 수십, 수백가지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약들의 바탕에 깔린 철학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책의 구체적 결과는 정치집단과 지도자의 철학에 달려있음을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치행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지혜와 힘을 모으지 못하는 정책은 겉치레 구호에 다름없습니다. 편협한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민족 화해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어느 후보가 국민의 참여를 통한 힘을 결집할 수 있고, 그 힘을 통해 민족의 자존과 평화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민간정부에서 깊은 자괴감을 맛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정당, 낡은 인물로는 국제정세의 격한 파도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안녕을 결코 한 순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감정의 시늬를 단호히 끊을 수 있고,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줄 알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2년 겨울 길목
노무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활동계획

- 노기사 홈페이지 운영
- 노무현, 노기사 관련 홍보물 제작
- 노기사 지역조직 확대
- 기도회 개최

참여방법

노기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 1) 지금 즉시 저희 노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바랍니다.
<http://www.nokisa.co.kr>
- 2)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후원을 해주십시오.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55201-04-000188 노기사 (나도은) · 우리은행 594-132781-02-101 노기사 (나도은) · 기업은행 047-044654-02-017 노기사 (나도은) · 농협중앙회 1127-12-118231 노기사 (나도은)
카드결제	저희 홈페이지 "힘을 보내주세요"를 클릭해서 "카드결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결제	저희 홈페이지 "힘을 보내주세요"를 클릭해서 "핸드폰결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 자원봉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힘을 보내주세요"를 클릭하신 다음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들어가 가능하신 시간대와 분야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무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노기사에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Homepage www.nokisa.co.kr | E-mail victory@nokisa.co.kr

34041



Homepage www.nokisa.co.kr | E-mail victory@nokisa.co.kr

걸어서 하늘까지

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 가득히 그런 나무들 숨쉬는
그 길 옆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죄많은 백성을 단죄하는 길보다
죄없는 백성을 변호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
돈과 명예를 담보삼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인간적 약함마저 끌어안고 부끄러워하며
그래도 가야할 길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경이 되어주는 그 무엇도 없이
하늘 아래 가난한 손 그대로
인간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분단된 이 나라에, 이 백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노·기·사·가·당·신·의·생·활·을·확·실·아·게·바·꿔·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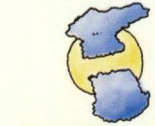
꿈을 싣고 달리는 노기사



국민의 깨끗한 돈으로만 가능한 정치.
지역감정이 없고, 부정부패는 꿈도 못 꾸는 정치.
원력과 소신이 살아있는 정치를 보여드립니다.



올바른 부의 분배정책, 안정된 일자리, 편안한 내집.
투명한 경제시스템으로
노동자 농민은 물론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소.



100만 이상가족의 아픔을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문제는 전쟁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갑시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 환경은 훼손의 것.
무분별한 개발보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합니다.



교육이민? 워킹홀리데이? 부모덕?
이젠 아닙니다. 성실한 보통사람
이라면 누구나 기숙지 않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기사가 나눠드리는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님은 세상의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올곧은 의지를 가진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일꾼인 노기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국민의 귀가 되고 눈과 발이 될 사람, **노무현** 뿐입니다!